36괘 - 지화명이 - 121222

전체 : 명이夷의 길에서 이로운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貞하는 것이다.

1효 : 처음에 양이 오니, 이夷를 밝히고자 하는데, (이夷가) 날아다니는 상태에서 그 날개를 잠시 드리우고 있는 상이다. 군자가 행함에 3일 동안 먹지도 않는 것은 가려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. 주인이 무언가) 말함이 있으리라.

2효 : 음이 두 번째에 오니, 이夷를 밝히고자 하는데, 이夷가 왼쪽 허벅지에 자리 잡은 상이다. 받아들인 말을 써서 장壯하게 나가면 길하리라.

3효 : 양이 세 번째에 오니, 이夷를 밝히고자 하는데, (이夷가)남쪽에 자리를 잡으니 정벌에 나서는 상이다. 그 큰 우두머리를 얻지만 빠르게 정貞하는 것은 불가하리라.

4효 : 음이 네 번째에 오니, 이夷가) 왼쪽 배에 드니, 밝혀진 이夷의 마음을 얻는 상이다. 문정門庭 밖으로 나오기에 이르리라.

5효 : 음이 다섯 번째에 온 것은, 기자가 이夷를 밝힌 상이다. 이로운 것은 정貞하는 것이다.

6효 :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 오니, 밝지 못하고 날이 어두워지는 상이다. 처음에는 하늘에 오르겠지만, 나중에는 땅으로 들어가리라.

전체 : 명이夷의 길에서 이로운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貞하는 것이다.